

중남미 농업 온실가스 발생 측정 성과 공유

농진청, 축산·식량작물 분야 온실가스 측정 경험 담은 첫 자료집 발간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회의체(KoLFACI)가 2022년부터 수행한 ‘중남미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최적 재배법 연구’ 과제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회의체(KoLFACI,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농촌진흥청과 중남미 1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중남미 농업 현안 해

결을 위한 현지 맞춤형 기술 전파하는 개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그간 중남미 국가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측정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했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온두라스는 목초지 유형별 축산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옥수수·강낭콩 윤작체계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측정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의 축산·식량작물

분야 온실가스 측정 경험을 담아 공식 발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측정 방법의 중남미 적용 경험 자료집’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 자료집은 중남미 농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온실가스 측정 경험과 과학적 분석을 종합한 중남미 최초의 온실가스 측정 자료집으로 가치가 있다.

특히 각국 농업환경과 생산 체계를 반영한 측정 기법을 수록해 향후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

립, 실행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경태 과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중남미 현장에 온실가스 측정 기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각국 농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남미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농협은 춘향농협 등과 남원지역 복숭아를 홍콩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진화 사업을 지난 18일에 가졌다

남원 복숭아 홍콩 수출 선진화

매주 약 4톤씩 5주간 총 20톤 수출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춘향농협(조합장 김영규),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창준)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지역 복숭아를 홍콩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진화 사업을 지난 18일에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이정린·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위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해 남원 복숭아 수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홍콩 수출은 매주 약 4톤씩

5주간 총 2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업체 한인홍은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한국 농식품 브랜드로서 40여개 판매 직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급차 한인홍 수출을 통해 남원 복숭아가 홍콩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복숭아는 올해 4~5월 저온으로 과실 발육이 지연되고 비정형과가 증가하였으나 6월 기온 상승으로 전월 대비 생육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오상근기자·남원=김기두기자

LX공사 어명소 사장, 성남 상대원 2지구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된 곳이다.

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국민의 삶의 터전을 바로잡고 분쟁 없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경청하여 국민 체감 서비스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LX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 측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민·관·공 협력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실경계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AI·로봇틱스분야 교육 전문가... SW전문강사 15명 새길 열다

SW미래채움 전북센터, 초·중등 학생 교육 위한 강사 양성과정 성료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에서 운영 중인 SW미래채움 전북센터는 지난 18일 SW미래채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2차 SW 신규 강사 양성 교육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AI)·로봇틱스분야 교육 전문가로 첫 걸음을 돕기 위한 신규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생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주간(160시간)에 걸쳐, 디지털 기본 소양, 컴퓨터 사고를 학습

하는 언플로그 활동, 블록코딩, 인공지능, 퍼지컬컴퓨팅, 메타버스, 현장 시범 강의 활동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하여 SW전문강사로서 역할을 키워나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선발된 신규 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 및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센터 내방 교육,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 행사 및 SW캠프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및 경험을 향상하는데 중추적인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은 “강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있어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에 위치한 SW미래채움 전북센터(전북 남원시 금동로 30)는 학생들을 위한 AI크리에이터, 파이썬, 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 등의 SW교육과 함께 스텝 챌린지, LIMQ VR·AR,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 운영 중인 SW미래채움 전북센터는 지난 18일 'SW미래채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2차 SW 신규 강사 양성 교육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폭우피해 이재민에 긴급 구호 물품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즉석밥 1만5,000개, 생수 1.8리터 500박스, 화장지 30롤 200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난 18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권과 광주권 대피소 등에 생수, 즉석밥, 라면, 휴지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을 전달한 것이다.

구호 물품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신속히 준비하여 현장에 직접 전달하였으며, 일부는 협력 기관을 통해 분산 배부되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

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지만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도 산불, 침수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체계를 통해 전국 이재민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제2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

LX,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플랫폼 활용 스마트시티 기술 접목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는 지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F)서 ‘제2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비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용 확산에 나섰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각 지자체 담당자, 도시계획과 교수 및 공간정보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활용방안 및 사례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계, 행정, 공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스마트시티의 연계 가능성을 공유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경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이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남광우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스마트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방향성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오상근기자



이어 부산광역시 강현영 도시정비과장은 최근 부산광역시 수도권 외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LX공사 최훈호 박사는 부산광역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이 실제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부산광역시 정비 선도지구인 화명·금곡지구, 해운대지구 공보 후보자에 3D 조감도와 디지털 인증 절차 등을 지원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